

거대한 스케일, 엄청난 규모의 투자액, 막강한 홍보... 거대한 영화의 틀바구니에서 '작은 영화'들이 주목받고 있다. '작은 영화'는 스타가 나오지 않은 영화나 저예산 영화를 가리키는 말이다. 또 작가의 개성이 묻어나는 작가주의 영화를 뜻하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마니아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으며 끊임없이 재생산 되고 생명을 유지하는 영화라는 것이다.

주목... 작지만 큰 영화

'내 청춘에게...' 등 마니아 만의 열광 아니다!

세 청춘의 이야기를 유니버설 식으로 꾸민 영화 '내 청춘에게 고향'은 그런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영화는 지난 7월 13일 전국 9개 관에서 개봉했다. 같은 날 개봉했던 한반도가 500개관에서 개봉했고, 대부분의 영화가 100~300개관에서 개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라한 숫자다. 하지만 관객들의 반응은 초라하지 않았다.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 2관왕을 차지했고 꾸준히 관객 점유율 80~90%를 유지하며 지난달 10일에는 관객 1만 명을 돌파했다. 관객들도 호평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영화평에 ID gjoodud19는 "이렇게 좋은영화인데 왜 별로 상영을 안하는것일까?"라는 글을 올렸다. juneby7는 "작지만 큰 영화, 지난 청춘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던 영화"라는 소감을 밝혔다. '작은 영화'의 약진은 특히 일본 영화에서 두드러진다. 이누도 잇신의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과 '메즈 드 히미코'는 각각 10만명과 7만명의 관객을 모았다. '녹차의 맛', '박사가 사랑하는 수식' 등 일본 작품들을 선보인 일본 인디필름페스티벌도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한국에서도 인기가 높은 배우 오다기리 쇼가 주연한 '유레루' 역시 개봉 15일만에 관객 3만 명을 돌파했다.



'내 청춘에게 고향'



'작은 영화'의 소박한 성공에 영화관도 활기를 띠고 있다. 위 왼쪽부터 '시간' '유레루' '피터팬의 공식'

'작은 영화'의 소박한 성공에 영화관도 활기를 띠고 있다. 전국에 체인을 두고 있는 CGV는 2004년부터 서울 강남과 상암, 부산 서면에 인디 전용관을 운영해 오고 있다. 오는 21에는 인디 영화제인 '인디, 세상을 만나다'를 개최할 예정이다. 스폰지 하우스, 동송아트센터, 광주극장 등 예술영화 전용관도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 영화가 성공을 거듭하는 데 비해 대부분 한국 영화는 관객 1만 명 돌파도 힘들다. 일본영화는 마니아 층이 넓고, 본국에서도 호평을 받은 작품이 한국에서 개봉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너무한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

올 해 개봉한 영화를 살펴보면 '신성일의 행방불명'(감독 신재인)은 1천282명, '피터팬의 공식'(감독 조창호)은 3천72명, '다섯개의 시선'(감독 류승완 외)은 6천308명의 관객을 모으는 데 그쳤다.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는 김기덕 감독, 홍상수 감독도 10만 명을 넘기 힘들다. 김기덕 감독은 "어쩌면 '시간'이 극장에서 볼 수 있는 내 마지막 영화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시간"에 관객 20만 명만 들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내 청춘에게 고향'의 김영남(34) 감독은 "영화는 보여지기 위한 것인만큼 적은 관객수는 제작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배급망 확대와 관객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日 영화 약진... 하지만 한국영화는 1% 부족?

주목! 이 영화

'천하장사 마돈나'

'천하장사 마돈나'(감독 이해영 이해준·제작 싸이더스FNH)는 담백한 드라마를 기다려왔던 팬들에게 반가운 영화다.

천하장사와 마돈나라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주인공 오동구는 풍성한 몸매에 가진 것은 힘 뿐이지만 '여자'가 되기를 꿈꾸는 소년이다.

수술비를 벌기 위해 장학금 500만 원을 주는 씨름관에 뛰어드는 코믹한 캐릭터



터로 비치기 십상이지만 "나는 아마 못생긴 여자가 될 거야"라면서 자신의 몸에 한 발짝씩 나아가는 진지함도 가지고 있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과장되지 않은 유쾌한 웃음

수술에 성공해 좋아하는 선생님께 당당하게 나설 날을 기다리고, 웃음을 노출할 때 양 가슴에는 캐릭터가 그려진 밴드를 붙이는 동구가 '씨름관'에 뛰어들면서 벌어지는 각종 에피소드들이 가볍거나 거부감이 들지 않는 것도 동구의 그런 진정성 때문이다.

영화의 가장 큰 미덕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간 중간 나오는 만화같은 설정은 영화와 썩 잘 어울리고, 과장되지 않은 유머는 유쾌한 웃음을 선사한다. 15세 관람가.



가수 김정민 이번엔 고소영 첫사랑?

오는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수 김정민(사진)이 고소영의 첫사랑으로 영화에 출연한다.

김정민은 로맨틱 코미디 '언니가 간다'에서 고소영이 연기하는 서른살 나장주에게 상처받은 남긴 첫사랑 조하너로 등장한다.

인기를 모았던 시트콤 '월드 미스 다이아'에서 연기를 선보였던 김정민은 '언니가 간다'에서는 가수 역을 맡았다.

한편 '언니가 간다'에는 이범수가 고교 시절 나장주를 좋아했던 오태훈으로 출연하며 오달수·윤종신·옥지영·오미희 등이



는 서른 살의 여주인공이 12년 전(94년) 첫 연애시절로 돌아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려는 과정을 그린 코믹 로맨스다.

개성있는 조연으로 합세했다.

고소영·이범수·김정민의 고교 시절은 유건과 조안, 이종문이 출연한다.

'언니가 간다'는 첫 남자 때문에 인생이 꼬였다고 믿

주말 극장가	
영 화	상영극장
일본침몰 일본이 갑자기 일어난 대지진으로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다는 극단적인 가정 아래 펼쳐지는 재난 블록버스터. 12세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목포 메가리안,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해변의 여인 홍상수 감독과 배우 고훈정이 만들어낸 색다른 사랑 이야기. 15세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레이크 하우스 우리나라 영화 '시월애'가 할리우드 식으로 제작됐다. 키에누 리브스와 샌드라 블럭이 주연을 맡았다. 12세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천하장사 마돈나 여자가 되고 싶은 동보 소년의 수술비 마련기. 배우들의 호연이 돋보인다. 15세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목포 메가리안,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13구역 부패한 도시 13구역에서 벌어지는 화끈한 '몸의 액션'. 15세 관람가.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에이없는 것들 신하균이 허 째는 소리를 내기 싫어 말없이 살아가는 전문 킬러 '킬라'로 등장하는 블랙코미디. 19세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원탁의 천사 뇌진탕으로 숨진 아버지가 심대의 몸을 빌어 환생했다! 허동훈의 능청스러운 연기가 돋보인다. 15세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극장,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목포 메가리안, 목포 CGV, 순천 롯데
이이스케이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를 찾기 위해 이이스케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소년의 이야기가 80년대의 향수를 자극한다.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엔터,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목포 메가리안, 목포 CGV, 순천 롯데
신데렐라 현수(신세경)는 성형외과의 사인 염대도지원에 수술을 받은 친구들이 잔혹한 죽음을 맞게 되자 염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한다. 15세 관람가.	무등,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각설방 어릴때부터 유난히 말을 좋아한 시은(임수정)은 2년전 원치않게 헤어져야 했던 경주마 천둥이와 운명적으로 재회하게 되고 함께 경마대회에 출전한다. 전체 관람가.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괴물 오염된 한강에서 돌연변이로 생긴 괴물을 상대로 가족의 사투가 펼쳐진다. 12세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프리머스 제일,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목포 메가리안, 목포 CGV, 순천 프리머스

일본규슈 투어

한 달 만에 규슈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즐기며 규슈의 특산물도 맛볼 수 있는 소박하기

역사문화 탐방

- 1박 2일 규슈 탐방 ₩279,000 (2인 1실)
- 2박 3일 규슈 탐방 ₩499,000 (2인 1실)
- 3박 4일 규슈 탐방 ₩399,000 (2인 1실)

골프투어 모집

- 골프투어 참가비 ₩299,000
- 시리우스골프클럽, 케이오스케이팅(유지남골프)
- 9월 17일(토) 규슈 출발 (2인 1실)

☎ 문의처 원주일보사
☎ 주소 (주)투어여행사
☎ 도시 (062) 270-0541